

다산포럼

메르스 공포의 정치사회학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번 메르스 확산 과정을 보면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이번 일리치(Illich)의 경구가 떠올랐다.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들”이라고 시인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는 삼성병원의 의술과 명성을 알고서 그곳으로 치료받기 위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삼성병원은 전염병 환자를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일개 영리병원일 따름이었다. 한국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삼성병원은 역설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이번 메르스 감염자들을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던 삼성병원을 크게 비난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전염

병의 확산을 막는 일은 삼성병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과거나 현재나 전염병 백신을 개발하거나 확산을 막고 발생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중보건은 영리병원이 아닌 국가나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민간 병원에게 전염병 환자는 오히려 기피 대상 고객이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민간병원은 환자 받기를 꺼렸다.

그렇게 보면 의술의 발전, 병원의 대형화와 현대화, 의료장비의 첨단화는 공중보건의 질 제고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기업화된 병원엔 충분한 치료비를 준비해 오는 고객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고객의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다수 국민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자기 회사 직원인 의사나 간호사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전염병 환자가 자기 병원에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영업 비밀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공중보건보다는 삼성병원의 위신과 이익에 신경을 쓰는 태도를 보였다.

전염병 확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공권력 동원이 가능한 정부가 공익, 즉 국민

건강의 관점에 서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전염병이 마구 퍼져 온 국민을 환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몇 분야의 의술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 선진국 한국이 하루아침에 ‘의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국가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에만 관심 있는 병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득을 쫓는 영리병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부나 정치권은 전염병 환자와 공포에 질린 국민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9.46개로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런데 1000명 당 공공병상 수는 1.19개로 OECD 24개 국 중 최하위다. 그러니 이런 위급한 사태가 발생해도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할 병동이 없는 것이다.

자가 격리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자가 격리라는 것은 결국 병을 가족에게 옮기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걸로로는 정부의 대응 과정, 혹은 전염병 방지 시스템의 붕괴 때문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

면 잘못된 시스템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즉 최고의 의술과 시설, 막대한 의료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리병원은 중병에 걸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국민 일반의 건강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공공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로막거나, 이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면 오히려 국민을 심한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하고, 수천 명의 환자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은 과거에는 없었던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와 정치권의 공중보건 강화 노력이 없다면, 처음에 우습게 시작된 전염병도 전쟁과 같은 대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대처 모습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거의 판박이다. 이 정권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권력 유지, 대기업의 이익 보장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정치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

정춘 특·특

세계 중심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



구 동 한
호남대 뉴스센터 편집장·추구학과 3학년

있다.

광주U대회기간 선수가 아닌 신분으로 바뀐 대학생도 있다. 바로 ‘Uni-bro(이하 유니브로)’의 주인공인 대학생 기자들이다. 세계최초 LTE 온라인 대학생 방송국 유니브로는 광주U대회 실황을 지구촌 곳곳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가 주관하며 소속 학생기자들이 방송국을 중심으로 전국과 세계에서 모인 대학생 기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예비 언론인으로서 U대회를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 하게 된다. 개국 전부터 긴 강의시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광주와 U대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사전 제작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데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현재 제작 중인 호남대학교가 광주U대회의 유니브로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 1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 유니브로 위탁운영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눈고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국제 대회에서 실황 중계를 해야 하는 만큼 준비 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울산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전국 대학과 2017학계U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의 중국문화대학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60여명의 국내의 대학생 기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국제 대회인 만큼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취재 및 영상 제작 편집에도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 반 설렘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앞서 광주를 소개하는 것이 약간 땃땃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광주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학생 예비 언론인으로서 광주U대회는 물론 광중과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중추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까지 하다.

젊음의 상징이자 기발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의 보고(寶庫)인 대학생들이 뜻을 모아 함께 한다면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도 남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본다. 세계 각국의 대학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광주U대회는 다양한 색을 뽐내게 될 것

이다. 경기장 안팎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많은 대학생들은 스포츠라는 만큼 평화와 화합의 수단을 통해 하나가 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광주U대회라는 배경과 유니브로라는 매개체를 사이에 두고 역할을 분담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사실 얼마나 양질의 기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보다는 국내 타 대학 뿐만 아니라 국외 대학 기자들과 ‘교류’하고 서로의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비록 보름 남았지만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최대의 기량을 뽐내는 이상으로 우리 역시 경기장 밖에서 값진 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스포츠, 학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 대학과 활발 교류를 통해 젊음이 넘치는 대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세계 최초 대학생 LTE 온라인 방송국 ‘Uni-Bro’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뛰어보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주인공이겠는가.

社說

자가 격리 대상자가 광주 도심 활보하다니

전북 순창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에 오른 의사 부부가 국외로 출국했다가 돌아온 사실이 밝혀져 당국의 방역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해당 의사 부부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순창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된 A(72·여)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의사 B씨 부부는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오후 귀국했다고 한다. 정형외과 의사인 B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은 A씨를 직접 진료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순창보건소 측은 뒤늦게 B씨에게 자가 격리를 통보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출국 중인 사실도 모르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광주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니 자치단체 간 구조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B씨가 임의대로 출국한 것도 문제지만 ‘뒷북 행정’으로 일관한 보건당국의 안일한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메르스 지난 4일 순창군 마을 전체가 외부와 격리됐는데도 이 마을 주민이 버젓이 광주를 왕래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인 C(20)씨는 지난날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 모 사회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공익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메르스 확산은 병원 내 감염에 국한돼 있지만 격리 대상자가 도심에 활보한다면 지역 사회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우려된다.

따라서 메르스 차단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처는 이제 의무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민 개개인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주민 혈세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거늘

전남 도내 섬·해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나 해양·항만, 상하수도, 관광지가 개발 등의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한 가운데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3일까지 15일간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합동 기동감사를 실시, 모두 13건을 적발하고 부풀려진 공사비 7억3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과다 설계, 품질·시공관리 소홀, 설계변경 소홀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부적정 사례로 적발된 곳은 도로공사 현장 4곳(2억 7125만 원 감액), 해양·항만공사 현장 3곳(9941만 원 감액), 상하수도공사 현장 1곳(3678만 원 감액), 하천공사 현장 1곳(4623만 원 감액), 관광지공사 현장 3곳(1억8287만 원 감액), 택지·건축공사 현장 1곳(9866만 원 감액) 등이다.

특히 고흥 사양~와교 연도교 가설

공사의 경우 군에서 별도로 발주한 공사과 일부 중복됨에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 7790여 만 원을 과다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험 도로 개선사업을 실시중인 한 업체는 불필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7496만 원을 부풀렸고 관광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맡은 어느 업체 역시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며 7355만 원을 과다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억여 원의 돈이 새 나갈 뻔했다. 7억여 원의 돈은 그리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푼의 돈도 허투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주민 혈세인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다.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과 관련해 7명을 경고와 훈계 조치했다지만 ‘예산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게 대한 문책을 보다 엄중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가리키는 ‘휴머노이드’(humanoid) 용어가 부쩍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런 용어에 앞서 오래전부터 위험을 수반하는 드론 등 군사 무기는 워낙 다양 무인(無人)화돼 원격 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로봇이 필요한 분야는 접근이 위험하고 어려운 재난현장 등지일 것이다.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조사하기 위해

특수로봇을 투입한 것이 좋은 사례다.

인간형 로봇

KAIST(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팀이 개발한 ‘휴보(HUBO)II’가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모나시에서 열린 ‘다르파 로봇 챌린지’(DRC)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을 뽑는 이번 대회에서 ‘휴보II’는 벽 뚫기·계단 오르기 등 8개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 ‘로봇 강국’ 일본과 미국 팀을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된다면 재난현장에서 슬지, 살인무기로 쓰이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기고

‘희망 세대’로의 안내



윤 현 기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저 포기하여 ‘칠포 세대’라고 하니 큰 일 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웬만한 직장엔 취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어느덧 ‘왕년에는 말아야……’하는 식의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민망할 따름이다.

하지만, 한쪽은 취업에 대한 희망도 없는 절망상태인데 다른 한쪽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난감해 하고 있다는 뉴스도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골손이는 20여년이 넘게 우리 신보에 끊임없이 수 많은 중소기업들을 겪어 본 결과,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은 유망 중소기업들,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들이 적지 않음을 체득한 바 있다. 그

런데 이런 ‘강소기업’조차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호남 지역 본부장으로서 재임하면서도 많은 ‘강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이나 창직(Job Creation) 등 실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기업과 인력이 미스 매칭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서로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인력 매칭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우리 신보는 취업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신보 Job 매칭 서비

스(Job Cloud)’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 평가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희망찬 취업’으로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험하 보이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아무 중소기업이나 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튼튼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좋은 일자리도 얻고 마음고생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다시금 ‘좋은 일자리 기업’들이 풀려있는 ‘신보 Job 매칭 서비스(Job Cloud)’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고 연애도 하고 결혼하여 자기 집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정한 삶의 여유를 느끼는 ‘희망 세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해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